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04.18 (통권344호)



경제이슈

그리스 채무재조정 위험 증가

한국은행 2011년 경제전망 수정

경영노트

높은 성과는 데이터 분석 역량에서 나온다

사회 트렌드

한국의 자화상

저널 브리프

2020년 경영 10대 키워드

洗心錄

겸손경영

□ 그리스 채무재조정 위험 증가

- 최근 그리스 채무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그리스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유럽 금융시장 불안 증대
 - (그리스 국채금리 급등) 최근 그리스 채무재조정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4월 11일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역대 최고수준인 13.27%를 기록
 - (그리스 국채 헤어컷 필요성 대두) 그리스 국채금리 급등은 그리스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심리가 반영된 것이며, 이에 따라 그리스 국채에 대한 헤어컷¹⁾ 필요성이 대두
 - (향후 전망) 그리스의 재정긴축 프로그램 성과 및 5월까지 예정된 108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 상환 결과가 그리스 채무재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집행위원회(EU)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전망
- 그리스 채무에 대한 재조정 및 헤어컷이 진행될 경우, 그리스 금융시장의 대외신뢰도가 추락하고, 이 여파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주변 재정위험 잠재국으로 확산되어 유럽 재정위기 발생이 우려

□ 한국은행 2011년 경제전망 수정

- 한국은행은 2011년 경제전망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
 - 경제성장 :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중국 등 신흥 시장국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유로존 재정문제가 재부각 되고 국제유가 지속되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기존 전망치인 4.5%를 유지
 - 물가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인플레이션 및 유가상승이 물가에 반영되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3.9%(기존 3.5%)로 상향 조정
 - 경상수지 : 세계경제의 견조한 상승세 및 교역 증가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가급등 영향으로 경상수지 전망은 110억 달러(기존 180억 달러)로 축소
-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및 근원인플레이션 등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

1) 헤어컷 : 채무재조정의 한 형태로서 일정비율의 채무 원금을 할인 혹은 탕감하여 주는 것

□ 높은 성과는 데이터 분석 역량에서 나온다²⁾

- 기술이 발전하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성과 창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각종 기술의 발전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증가하였지만 이를 활용하여 보다 가치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은 부족함
 - 실제 조사 결과 고성과 조직은 다른 조직보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5배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분석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줌
-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있어 앞서가는 조직은 분석 도입을 원하거나 능숙한 정도의 수준을 가진 조직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환 단계에 올라있는 조직은 분석 결과를 비용 절감과 부수적 매출 증가를 넘어 근본적인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
- 정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의 목표 설정, 새로운 분석법의 지속적 도입, 포괄적 정보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방안 >

	내 용
큰 목표와 가치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려진 바와 달리 큰 목표에 대한 도전은 실패 확률이 높지 않으며, 이는 목표가 클수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 •또한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 방향 등의 제시 없이 분석이 시작될 경우 자원의 낭비는 물론 분석 과정에서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음
포괄적인 정보 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를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 조직을 구축해야 함 •이는 각 부서의 독립적 정보 계획에 따른 복잡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석 기술의 도입 시에도 혼란을 줄일 수 있음
데이터 관리 부서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분석은 필요성을 느낀 부분부터 시작되고 경험이 누적되어 조직 전체로 확장되면서 데이터 분석의 전문성을 갖추게 됨 •이 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부서를 두고 데이터 자원과 분석 결과가 조직 전체에 공유되도록 활용해야 함
데이터 범위의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은 초기 데이터 수집 단계에 의욕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사업 기회를 위해 요구되는 통찰력을 먼저 정한 후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범위를 한정하여 수집을 시작해야함
새로운 분석 방법의 지속적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분석 방법이나 도구의 지속적인 도입은 분석 과정에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통찰력 제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현재의 주요 분석 방법들은 2년 후에는 활용 빈도가 빠르게 줄어들며, 새로운 방법들이 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함

2) 본 자료는 'Big Data, Analytics and the Path From Insights to Value(MIT Sloan Management Review 2011 Winter)'를 요약 정리함

□ 한국의 자화상³⁾

- OECD가 지난 12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사회상(Society at a Glance)’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참고서
- (투표율) OECD가 가장 최근 치른 총선거 투표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46%로 최하위를 기록
 - 투표율은 1~3위인 호주(95%), 룩셈부르크(92%), 벨기에(91%)는 물론 OECD 평균(70%)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돈 8만 원 가량 벌금을 물리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것이 1위를 한 배경
 - 선진국과 달리 고학력자 투표율이 낮은 것도 중요한 특징. 고학력자일수록 투표율이 높았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저학력자 투표율이 높음
- (신뢰) ‘신뢰(trust) 지수’ 평가에서는 46점을 받아 칠레, 터키, 멕시코, 포르투갈, 그리스에 이어 뒤에서 6번째
 -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tolerance) 지수’에서도 43점을 받아 OECD 평균(61점)에 크게 못 미침
- (가사노동) 한국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에 못 미쳐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이었음
 - 회사에서 이라는 시간이 긴 탓도 있지만 가사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는데,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
- (학업성취도)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09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은 읽기 능력에서 539점을 얻어 핀란드(536점)를 제치고 1위
 - OECD 평균은 496점이었고 최하위권은 터키, 칠레, 멕시코 등이 형성
-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2009년 기준)은 1.15명에 그쳐 포르투갈과 공동 꼴찌. 두 나라는 2000년에 비해 출산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
 - 우리나라와 최하위를 다툰 나라는 헝가리(1.32명), 독일(1.33명), 일본(1.36명) 등임

3) “OECD가 바라본 한국의 자화상”(매일경제 2011.4.15) 참조

□ 2020년 경영 10대 키워드4)

■ 한국경영학회는 최근 2020년 경영트렌드를 나타내는 10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함

- ① 공유가치(Shared Value) 경영
 - 기업 경영에 있어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유가치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임
- ② 다양성 포용(Diversity-Embracing) 경영
 - 급변하는 환경과 격화되는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적, 연령의 우수인력을 받아들여 창의성과 역동성을 확보해야함
- ③ 광합성(Photosynthesis) 경영
 - 탄소를 산소로 변환하는 광합성처럼 미래의 기업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펼쳐야함
- ④ 한국유전자(Korean DNA) 경영
 - 빠른 학습능력과 실행력 등 한국기업의 장점을 극대화해야함
- ⑤ 진정성(Authenticity) 경영
 -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고객의 소비경험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기업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짐
- ⑥ 모멘텀(Momentum) 경영
 - 패러다임의 변화를 혁신과 창조의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모멘텀 전략이 기업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임
- ⑦ 오너-전문인(Owner-Professional) 경영
 - 오너경영의 빠른 의사결정과 장기적 성과 추구, 전문경영인의 경영전문성을 조합한 오너-전문인 경영이 확산될 것임
- ⑧ 휴머노이드(Humanoid) 경영
 - 기술발전으로 기계의 모습과 작동방식이 인간을 닮아가고 있으며 이 같은 기계의 휴머노이드화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경영이 부상할 것임
- ⑨ 통일시대(Post-Unification) 경영
 - 통일을 계기로 신사업 기회를 공략하는 통일시대 경영도 주목됨
- ⑩ 감정케어(Emotion Care) 경영
 -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균일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감정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조직원의 정서를 보살피는 감정케어 경영이 중요해질 것임

4) “10년 후에는 휴머노이드·감정케어 경영 뜬다”(매일경제, 2011.2.20) 참조

□ 겸손경영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그 꽃)

출세 가도를 달리기만 하는 CEO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 나로 말미암아 의도하지도 못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 대한 배려 등등. 이런 것들이 CEO란 높은 자리를 향해 돌진할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내리막길로 접어들면 보이게 모양이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 내려갈 때 보이는 것은 참 인간사의 패러독스이다.

“Everybody here used be somebody.” 플로리다의 한 양로원에 붙어 있는 말이다. ‘여기 있던 사람들도 한 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란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양로원에 있다고 별 볼일 없는 노바디(nobody)로 대우하지 말하는 문구다. 이런 문구를 보면 좀 겸손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는 썸바디가 노바디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내가 지금 좀 썸바디라고 해서 잘난 척하거나 주위를 무시할 일이 아니다.

공자(孔子, BC551-479) 가라사대, 가난하면서도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이 없기도 어렵다고 했다. 권한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CEO들이 겸손해지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CEO가 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했던 성공의 체험은 자신감을 넘어 오만함으로 나타나기 쉽고 그래서 주위의 의견을 귀담아듣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항상 조심할 일이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된다.

- 파스칼(1623~1662) :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 -